

2010년 겨자씨를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



2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겨울방학을 맞아 재충전을 위해 휴식을 취했던 겨자씨도우미들이 1박2일의 수련회를 위해 포천에 있는 광림세미나 하우스로 출발을 하였다.

식사 후 6시부터 여는 예배로 시작을 하며 박원호 담임목사는 겨자씨로 진정한 생명을 키우고 집단만 있고 숫자만 있지 않게 진정한 생명을 살리고 겨자씨를 통해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진정한 생명 키우기를 바랬다. 주승중 목사(장신대 교수)특강 후 각 교구 교역자들이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하며 함께 부르짖었다.

〈박윤정 기자〉

주님의교회에 대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교회가 있음에 행복하고 사회에 헌신하기를 바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며 내게 맡겨진 겨자씨를 통해 한사람 한사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담당하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자신과 우리들 가정의 문제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위로가 치유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부족한 모습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튿날은 이상화 교수의 소그룹에 대한 특강을 듣고 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교회 새로운 역사를 새로 창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고 세상적인 일을 쫓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며 3월 5일부터 상반기 겨자씨 모임에 적극 참여하기를 다짐했다.

제13기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3월4일 목요일, 중보기도 3월 월례회와 사역자모집을 위한 세미나가 소예배실에서 있었다. 오전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존 팀원 131명과 새로 신청하신 36명, 총 169명이 김주원 사모님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박원호 목사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20가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 돌아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고 모든 기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다.

점심식사 후 영락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담당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하셨는데 중보기도는 영적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조하셨다. 박해성 목사님께서는 '중보기도의 능력과 응답'이란 주제로 다니엘서 6:6~10 말씀을 전하셨고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고 말씀해주셨다. 또 우리의 중보자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중보자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해 주셨다.

〈중보기도 사역팀 장계영〉

사역박람회 사진 이모저모...



사역박람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주일(3/7) 본교회에서는 사역박람회(주최대회장:김한중장로, 담당사역목사:유기영, 총무:조선연 안수집사)를 개최했다. 12개 사역본부는 각 사역본부별로 교회 앞 로비를 할당받아 사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역이 주는 감사함과 즐거움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회장은 사역박람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교회가 크지만 자칫 의명성에 함몰되어 1달러 교인이 될 수 있다. 1인이 1사역을 원하지만 정보부족과 기성집단의 탓에 의해 봉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사역을 지원한 손상수 집사(4-3)는 〈중보기

도팀〉에 지원서를 내면서 목사님의 설교말씀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를 따르는 뜻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제자들의 편견 있는 행동을 보인 것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되기 위해 지원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교회의 굵은 일을 하는 봉사팀이 자리를 서쪽으로 배치해 쉽게 눈에 띄지않아 아쉬웠고 총 250여명 지원에 스포츠 사역본부에만 80명이 지원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태원 편집장〉

국수먹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본교회 예배후 맛보는 즐거움은 아마도 잔치국수일거다. 권사님들이 최고급 멸치 다시마 무마늘 기타 양념이 잘 배합된, 푸욱 끓인 육수에 베테랑 집사님이 삶은 졸깃졸깃한 국수는 어린 시절 고모님 시집간 날 배터지게 먹었던 '국수' 맛이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존 3부 성가대가 쓰던 장소를 일반성도도 사용할 수 있어 국수 먹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강경원(7-6구역)권사는 "3부 성가대장님의 협조로 모든 성도가 편안하게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교회가 좀 더 배려해야 하지만 공간이 없는 관계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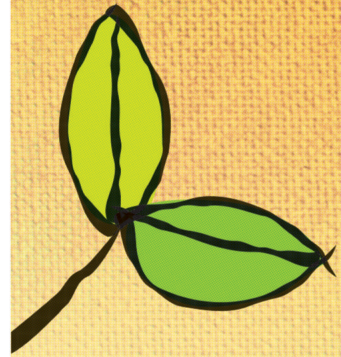
겨자씨모임을 시작하며 / 당회소식	2면
화제의인터뷰 / 정례팀방 / 스포츠사역팀소개	3면
중보기도사역자들 / 겨자씨수련회 / 사역박람회 사진	4면

5분 명상

Peace Movement를 하며 큰 모임의 행동을 보여주면 눈에 쉽게 띄고 알아주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의 작은 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큰 운동 중 한 가지가 종이 컵 덜 쓰기 아닐까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야 하는 지체들, 혹은 여러 가지 봉사 및 개인 사정으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질 수 있는 우

리들은, 자연스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회용 컵을 찾게 됩니다. 일인 당 많게는 5~6개 적게는 1~2개의 종이컵을 씁니다. 교회에서 부득이하게 일회용 컵을 썼다면 자기 컵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쓰는 등의 적극적 참여로, 주일 하루에 한 개씩만 덜 써도 만만치 않은 양의 물자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수계산 잘하는 우리들은 금방 감이 잡히시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고유한 컵을 갖고 다니는 것도 정말 작은 일로 크게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하여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여 큰 일'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Mission



2010년 겨자씨 모임을 시작하며

겨자씨를
가꾸는
사람들

겨울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2010년 겨자씨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 인도자를 2월 한 달 동안 겨자씨인도자 훈련과 광림세미나 하우스에서 가졌던 '겨자씨를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수련회' (2/26-27)를 통하여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겨자씨 모임을 위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겨자씨를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수련회'는 대부분의 겨자씨인도자들과 향촌직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시간들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려서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수련회에 임하는 자세는 모두 진지하고 뜨겁기만 했습니다.

첫째날, 저녁 첫 번째 특강 강사로 나선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이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목사님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4-5절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인도자들에게 헌신과 사명감을 더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로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실 때의 생생한 일면을 말씀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어진 은혜의 시간에는 담임목사님과 교구목사님들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새벽기도시간에 신약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열기가 이 곳에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교구 목사님들과 향촌직분자들과 겨자씨인도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교구별 모임을 가진 후에 침실에 들어가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목사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겨자씨인도자 한분 한분에게 겨자씨 인도자로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달라는 감사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번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맛보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광림세미나 하우스 잔디밭에서 전진희목사님의



인도 진행된 '국민체조'는 우리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두 번째 특강시간에는 소그룹목회연구원이신 이상화목사님께서 건강한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인지에 관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소그룹에 대한 임상적인 내용들이 겨자씨인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겨자씨가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꾸는 사람들의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겨자씨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분부터 겨자씨를 가꾸는 사람들의 정성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 소그룹담당 이강찬 목사



당회소식 (2월21일)

1. 총회에서 요청한 목포동노회지원(2천만원) 건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2. 이말렉 선교사를 우즈베키스탄 협력선교사로 허락하다.
3. 어린이집 지원팀을 복지소위원회 내 신설 제직부서로 허락하다.
4. 정신학원 신입생 성경지원에 따른 추가비용 186만원은 청소년사역소위원회 예산 내에서의 사용을 허락하다.
5. 4부 예배 시간 변경은 추후 검토를 더 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6. 소위원회의 기승인 된 예산 내에서 항목 전용 건물은 다음 당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7. 사무국 운영비를 사무국에서 검토하여 다음 당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확정시까지 관리장로의 활동비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다.
8. 헌금을 위한 은행계좌를 3개정도 개설하기로 하다.
9. 2009년도 예산결산(공동의회)시 케노피 계약해지에 따른 부담액 2,060만원의 처리는 기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여 다음 당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10. 주중에는 학교 내 교인들의 차량주차를 금지하기로 하다.(수요예배 제외)
11. 아이티 재해 구호모금액 지원을 위한 협력기관 선정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자식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먹고 자란다



내내 잊히고 사라져버린 기억들이 나폴 거리며 떠오릅니다.
막 봄이 올 것같은 계절의 끝자락에서다가 오는 설레임들... 푸릇한 희망이 싹을 틔우는 그정답된 모습이 떠오르네요..
활채어 봉사를 하며 예배참석을 위해 교회에 오던 성경이 모습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성경이 졸업사진을 한점을 보았습니다.
성경이의 모습과 엄마의 웃는 모습을..

뇌성마비 딸 성경이를 25년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한 장한 어머니 최경희 집사를 만났습니다. 나사렛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성경이의 사각모를 쓴 엄마는 지난 동안 딸과 지냈던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해주신 일에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 합니다. 1살 때부터 25년 동안은 성경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정숙자 권사님에게서 주님의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주님의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정신여중고를 다니며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부에 열심히 출석하는 성경이의 모습 하나님께 보시기에 심히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1. 성경이와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며 어머니가 느낀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가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내려놓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2. 성경이가 크며 가정에서의 교육 장애인인 있는 집안에서 관계 오페라의 관계는 어땠나요?
몸이 불편한 아이가 있는 가정 집사는 많았지만 아무런 편협된 사랑없이 다 이해해 주고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나사렛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문성경 자매 어머니 최경희 집사 인터뷰

오빠로서 '성경이에 대한 미래 어떻게 돌봐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요즘 성경이는?

지금은 그림공부와 1급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도 하며 여러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사회적인 일을 배우고 있는데, 역시 사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직화가들 모임 '화사랑'에서 서양화를 배우고 있는데 후 교육들 중에 성경이에게 서양화를 배워줄 수 있는 교우가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색해보면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할 때 같은 반 급우들이 환경미화나 학급성적이 항상 일등을 하였는데 성경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급우들이 성경이에 대한 사랑도 무척 컸다 하며,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만남 또한 즐거움 중에 하나라 합니다. 대학 1학년 때는 장학금도 타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동영상부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하며 미적인 감각이 많이 있으며 학교생활을 할 때는 기숙사 생활도 하고하여 가끔 교회 출석을 못하기도 하였지만 친구들이 많아 주님의 교회를 안다니면 교회 출석을 안한다 하며 주일만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고 ...

4. 주님의교회 장애인 여러 부서에 하고 싶은 말?

장애인들도 여러 부서에서 같이 더불어 사역을 할 수 있게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과 동료상당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 학교에서 배운 동료상당학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장애인(障礙)은 길게 사랑하는 장애인(長愛)임을 모녀를 통해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성경이의 사회 생활 적응을 위해 짧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경희 집사는 성경이를 키운 경험으로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교우가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주님의교회와 교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취재 / 정리: 신형섭 기자)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려태장남 : 제6여전도회-교회를 지탱해나갈 뜻뜻한 여집사님들.



3월 3일 여전도회 연합예배가 뜨겁게 열리고 있는 날, 제6선교회 회원들이 정기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설만한 물가를 찾았다. 참석인원은 6명으로 조출했다. 6여전도회는 회장 박성연, 부회장 임광희, 총무 박진희, 회계 김윤미 집사가 주축이며 회원이 25명이다.

이들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 소망의 집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석했던 김혜경 집사는 자신의 봉사활동 감회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요 원래는 비신자였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시부모님의 사람을 들킴받아 교회에 가게 되었고, 또 이런 봉사활동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없었지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박회장님은 천연스럽게 잘 해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6여선교회는 인원이 적고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박진희 총무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는 66년 이후 출생한 여집사로 구성된 모임

입니다. 저희 또래는 아이들이 유아이거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아이들 돌보는 일이 관심의 전부입니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아 어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전도회 사업이란 시간과 금전을 헌납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강한 신앙심이 아니면 헤쳐나가기 힘들죠.”

박성연 회장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6여전도회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은 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자회나 먹거리 장터를 통해 기금을 모금하고 이 성금을 경남의령군에 있는 농어촌에 후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전도회 찬양대를 조직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0시 지하 1층 연습실에서 찬양연습을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귀띔했다. 무엇보다도 어떤 조직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려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본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못 성도들의 말없는 기도와 봉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찬양 2세 교육에 여념이 없는 제 6여전도회를 교회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느냐는 질문에 참여한 회원들은 서슴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3>를 암송했다.

(취재 / 정리: 김광철 기자)

스포츠 사역팀을 소개합니다

스포츠사역팀은 올해 처음 결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본교회 성도, 정신학원 교직원 및 학생, 지역 주민들과 스포츠를 통해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YMCA와 YWCA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초기의 선교사들은 스포츠를 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듯이 스포츠를 통한 선교활동에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나약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강건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사역팀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믿지 않는 이들과 지역주민에게 다가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스포츠사역팀은 최용석 목사님의 주관하에 축구의 크로스(총무:정권, 010-9795-7427), 테니스의 주사랑(팀장: 이종석, 011-272-0324), 등산의 주님의 산사랑(총무, 이종익, 010-5410-2310), 유소년축구교실(부장: 이용수, 010-8705-9044), 한국무용팀(배숙자, 011-685-7263) 등의 활동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구, 탁구 등 더 많은 스포

츠 활동팀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스포츠활동에 관심이 있고, 보다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원하며, 스포츠활동을 통한 선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용진(010-9926-3600), 나영일(017-738-7144)집사에게 연락바랍니다.

(나영일 집사)

